

## 출산 관련 설화의 양상과 의미\*

염원희\*

### 차 례

1. 머리말
2. 산전외례 소재 설화에 담긴 임신의 의미
3. 난산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 기제
4. 출산 관련 설화의 의미

### ■ 국문 요약

본고는 출산 관련 설화를 대상으로 출산문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태몽담, 기자담, 임신금기담, 난산담을 살펴보았다. 태몽담과 기자담은 임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아들낳기의 소망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불확실한 임신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금기담은 임신 중 지켜야 할 규범의 역할을 하면서, 여성과 출산에 대한 양가적 인식을 드러낸다. 금기담에서 임신부는 태아를 위해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규제 하에 오히려 태아에 종속된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점은 난산담에서도 드러나는데 난산은 위급한 의료적 상황으로 인식되지만, 고통의 주체인 산모는 타자화되었다. 출산 관련 설화를 통해

\* 이 논문(또는 저서)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405828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kanakae@naver.com

임신에 대한 불안과 난산의 고통, 임신 주체인 산모가 소외되는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출산문화, 출산의례, 출산의료, 태몽담, 기자담, 금기담, 난산담

## 1. 머리말

설화는 인간의 삶을 다층적으로 담고 있는 텍스트이기에 삶의 출발점인 출산은 설화문학의 중요한 소재이다. 전통사회에서 출산문화는 ‘출산의례’라 일컬어지는데, 이는 통과의례(rites of passage)의 첫 단계로 출산의 과정에 따라 행해지는 의례를 말한다. ‘출산(出産)’은 ‘아이를 낳는 일’이지만, ‘출산의례’나 ‘출산문화’라고 하면 아이를 갖기 위한 잉태의 과정에서부터 출산의 과정, 출산 후 의례인 삼칠일·백일·돌까지를 포괄한다. 본고에서는 출산문화를 소재로 하는 구비설화를 대상으로 출산을 둘러싼 문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설화향유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과 출산 관련 설화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다. 여성은 남성을 통해 가장권을 계승했던 유교적 사회에서 끊임없이 아들을 낳을 것을 요구받았고, 이는 10대 후반에 혼인한 이후 가임 기간인 30년간 계속된 의무였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정에서 아이를 잃었고, 산모 자신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여성에게 출산은 삶의 당위적 과정이었지만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 출산의례가 발달하여 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출산은 생의학(Biomedical)의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병원 분만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고, 70년대에는 도시에서 80년대에는 농촌에서 병원 출산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1)</sup> 출산은

1) 조영미, 「한국의 출산의 의료화 과정-의료, 국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과정으로 전통적으로는 임신부와 가족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의료’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설화는 전통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담지한 텍스트이기에 설화를 통해 출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시각을 파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소재로 하는 설화에 관한 논의는 신화적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의 신이한 임신과 출산을 다루거나, 혼외 임신과 출산의 이면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양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귀태(鬼胎) 설화를 통해 혼외 임신한 여성과 아이를 가부장제 사회에 편입시켰던 문화정치적 실천의 의미가 논의되었고,<sup>2)</sup> 여성의 부정한 출산과 임신에 대한 남성집단의 대처를 통해 결혼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이중적 가치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sup>3)</sup> 이러한 기존 논의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서민 일반의 삶에 밀착된 임신과 출산의 보편적 양상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출산의례와 수술적 치료방법 등 민속적 요소를 중심으로 출산 관련 설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출산의례는 산전의례와 산후의례로 나뉘는데, 산전의례는 주로 기자치성에 집중되었고 임신 중 금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출산 중 난산을 해소하기 위해 행했던 수술도 다루었다. 산후의례로는 출산 직후 삼신상을 차리거나 삼칠일 금기, 백일과 돌 의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sup>4)</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출산의례의 양상이 설화를 통해 어떻게

7(1), 대한여성건강학회, 2006, 29쪽. 1950~60년대 출산 방법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렵지만, 1950~1959년도 농촌지역 출산 중 96.78%가 가정에서 분만하였다는 예재명(1980)의 연구에 비추어 60년대 이전 출산 대부분은 가정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33쪽).

2) 홍나래, 「조선시대 귀태(鬼胎) 소재 설화의 문화사회적 의의와 한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3) 김도형, 「여성부정출산담의 유형과 의미-결혼제도와 이중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화회, 2020

4)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2004, 86-91쪽에 걸쳐 기사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에 수록된 출산 소재 설화를 정리하였다. 『대계』의 출산설화는 ‘산전의례’를 소재로 하거나 출산 중 난산의 문제를 다룬 설화가 대부분이며, 산후의례를 소재로 하는 설화는 없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의 문제보다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임신 준비단계인 태몽(胎夢)과 기자속(祈子俗)을 소재로 하거나, 임신 중의 금기 등 ‘산전의례’를 다룬 설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설화문학에서 출산은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지지만 그 이면에는 출산이 어떠한 면에서 두려운 문제였는가 하는 점과 출산의 근본적 의미를 되묻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난산(難産) 소재 설화를 다루었다. 설화에서 난산의 문제는 명의(名醫)라 일컬어지는 인물들의 활약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명의에 의한 난산 극복을 소재로 하는 설화는 기존 연구에서 ‘난산치료담(難産治療談)’<sup>5)</sup>이라 명명되었는데, 치료담이라고는 하나 고통을 겪는 산모의 치료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의원의 탁월한 능력이 부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 출산의료에서 중요한 관심사인 임신과 난임(불임), 난산을 소재로 하는 설화를 통해, 설화의 전승자들은 출산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산문화에서 전통과 현대는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임신의 어려움과 난산의 고통은 전통 출산의례와 현대 출산의료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등의 산전의례와, 출산이후의 과정을 다룬 산후의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5) 권익숙, 「한국 의료설화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난산치료담’이라는 용어는 이 논문의 156쪽 부록에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용하였다.

## 2. 산전의례 소재 설화에 담긴 임신의 의미

임신 전에 아이를 얻기 위한 소망을 기원하는 기자(祈子), 아이를 갖게 되었음을 예지하는 태몽(胎夢), 뱃속의 태아를 교육하는 태교(胎敎), 임신 중 민간에서 행해졌던 여러 금기(禁忌)가 산전의례에 해당하는데, 이 중 태교를 제외한 나머지가 설화의 소재가 되었다.<sup>6)</sup> 산전의례는 민간의 속신으로 전승되었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문화였고 집단적 공동작인 설화에도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있다.

### 1) 태몽담의 기자성과 불안의식

태몽은 아이를 잉태할 조짐을 알려주는 꿈이다. 설화에서 태몽의 대상은 위대한 인물에 대한 탄생담이나 귀자(貴子) 탄생 중심이었다가, 근대 이후에는 아들을 감별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었는데,<sup>7)</sup> 『대계』에 수록된 태몽 소재 설화 목록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 6) 태교가 이상적 인간상을 키워내는 첫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전기에는 주로 왕실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특히 왕세자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이상론을 현실화하려는 사대부에 의해 심화되었다(윤은경,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의 태교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1권 1호, 2018, 163쪽). 즉 태교는 왕실과 사대부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교를 이상적 인간으로 교육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보면 여성이 임신기간에 지켜야 할 언어나 행위 금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2.3)에서 살펴볼 금기 안에 어느 정도는 서민들의 태교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 7) 태몽담의 소재 변화는 박상란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신화, 전설, 고소설의 탄생담은 위대한 남성을 예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근대 식민지기에는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의 占卜과 豫言』에서 몽점(夢占)을 소개하면서 “귀자를 얻는다는 경하할 만한 임신 징조”로 보았고, 몽점 50종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 42종이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박상란, 「현대 태몽담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양상과 의미-딸태몽담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12, 158-159쪽. 박상란은 이 외에도 현대 태몽담을 채록·분석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구분	실화명	제보자	년도	지역	출처
1	양정공 태몽	하성근	1980	경남 진양군 수곡면	『대계』 8-3
2	팔용 형제의 태몽	하성근	1980	경남 진양군 수곡면	『대계』 8-3
3	태몽(胎夢)	김태영	1981	경남 밀양군 무안면	『대계』 8-7
4	영조 태몽을 해몽한 꼬마	고광옥	1984	전남 승주군 주암면	『대계』 6-4
5	허미수 선생의 태몽	김형국	1984	전남 해남군 화산면	『대계』 6-5
6	이서구(李書九)의 태몽	김형국	1984	전남 해남군 화산면	『대계』 6-5
7	비행기가 보여 아들 낳은 태몽	허순임	2009	전남 구례군 용방면	『대계』 6-5
8	이순신 장군 태몽	최분례	2009	충남 금산군 부리면	『대계』 개정증보
9	용알 태몽 꾸고 낳은 천사선생택 사형제	김창희	2011	경북 의성군 점곡면	『대계』 개정증보
10	폐지가 보인 태몽	김옥순	2011	전남 담양군 고서면	『대계』 개정증보
11	아들 낳은 태몽	전예금	2011	전남 담양군 무정면	『대계』 개정증보
12	아들 태몽	서금옥	2011	전남 담양군 용면	『대계』 개정증보
13	아들 낳은 태몽	문계화	2011	충남 태안군 원북면	『대계』 개정증보
14	아들 낳을 태몽	이용금	2011	충남 태안군 원북면	『대계』 개정증보
15	복숭아 태몽으로 얻은 아들	이 순	2011	충남 태안군 원북면	『대계』 개정증보
16	태몽 사서 출산한 이웃집	김제분	2012	경북 영양군 석보면	『대계』 개정증보
17	요석공주의 태몽과 설총의 출생	류시양	2012	경북 영주시 풍기읍	『대계』 개정증보
18	여의주 태몽을 꾸진복대사의 어머니	송헌	2012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계』 개정증보
19	집안의 자라 태몽	이선자	2012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계』 개정증보
20	아들 태몽	위복례	2013	전남 장흥군 용산면	『대계』 개정증보
21	아들 낳은 태몽	선쌍림	2013	전남 장흥군 장평면	『대계』 개정증보
22	변종인 선생의 태몽	변창순	2015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계』 개정증보
23	맹사성 태몽	윤용근	2015	충남 서산시 운산면	『대계』 개정증보
24	딸을 얻은 태몽	공복순	2017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대계』 개정증보
25	아들 태몽	범막례	2018	전남 광주 북구	『대계』 개정증보
26	옥수 같은 우물에 검은 고무신(태몽)	이병순	2018	경기 의왕시 고천동	『대계』 개정증보
27	용꿈을 태몽으로 꾸는 사람	천예은	2018	경기 의왕시 고천동	『대계』 개정증보
28	태몽 꿈을 꾸고 낳은 손녀딸	서성숙	2018	경기 안양시 동안구	『대계』 개정증보

[표 1] 『대계』 수록 태몽담 목록

[표 1]에 제시된 『대계』 소개 태몽담의 다수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2008년 11월~2018년 10월)’에서 채록되었다. 태몽담의 내용은 대체로 ‘태몽주체가 태아상징을 목격하거나 획득하는 것’<sup>8)</sup>이다.

먼저 자료4·5·6·8·9·17·22·23은 위대한 인물과 귀자에 대한 태몽으로 영조와 허미수, 이서구, 이순신, 설총, 맹사성, 변종인과 같이 널리 알려진 인물의 태몽이다. 맹사성의 어머니가 산을 삼키는 꿈을 꾸거나 변종인의 어머니가 큰 달을 품은 것처럼 태몽주체가 거대한 자연물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역사적 인물이 태어난다는 인과를 통해, 동일한 태몽으로 자신의 아이가 귀자의 운명을 갖길 바라는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태몽에는 태어날 아이의 운명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태몽담은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 자료16 <태몽 사서 출산한 이웃집>은 제보자가 달걀 세 개를 집에 가져가는 꿈을 꿨는데, 이웃집에서 이 꿈을 사가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다는 태몽이다. ‘꿈 사고팔기’는 『삼국유사』의 문희와 보희의 일화를 통해 널리 알려진 풍속으로,<sup>9)</sup> 이 설화에서는 달걀의 무늬가 얼룩덜룩한 건 아들, 하얀 건 딸이었다고 하여 남녀를 구분하는 의식을 담고 있으나, 차별적이지 않다. 하지만 [표 1]에 드러난 것처럼 태몽을 소재로 하는 설화에서 ‘아들 태몽’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태몽은 꿈 숭배와 남아선호 경향이 결합된 현상”<sup>10)</sup>임을 확인시켜준다. [표 1]에서 <태몽 사서 출산한 이웃집>, <딸을 낳은

8) 박상란은 현대 태몽담의 내용이 ‘태몽 주체가 태아 상징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였다(박상란, 「비극적 태몽담과 죄의식의 문체」, 『동악어문학』 제55집, 동악어문학회, 2010. 8, 209쪽). 그런데 『대계』에 게재된 태몽 설화 대부분은 2000년대 이후 채록된 현대 태몽담이지만, 태몽의 주체가 ‘태아 상징’을 획득하는 것으로 일관되지 않고 목격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어, 본고의 논의에서는 이 논문의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9)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三國史記』 卷第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一年.

10) 박상란, 「출산경험의 서사화와 현대 태몽담-뱀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0, 324쪽.

태몽>, <옥수 같은 우물에 검은 고무신>을 제외하면, 귀자이든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든 모두 아들 낳는 태몽이다. 설화의 아들 낳는 태몽에서 태아 상징은 거대한 산을 삼켰다거나, 용·구렁이·뱀·소 등으로 나타나는데, 현대에는 이러한 태아 상징의 성별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sup>11)</sup> 한국은 오랫동안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기에 결혼 후 아들을 낳는 것이 보편적 의무였으며, [표 1]의 ‘아들 낳는 태몽’은 그러한 현상의 산물이다.

이상의 태몽 소재 설화가 태몽 일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아기의 부정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태몽의 존재는 예사롭지 않다. 1981년 채록된 자료3 <태몽>은 태어날 아이의 죽음을 예견한 꿈이라는 데서 주목된다.

- ① 꿈에 잉어를 잡았는데 힘 있는 놈은 놓치고 시들한 놈만 잡는다.
- ② 그 후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가난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 ③ 아들의 성장 시기마다 초립둥이와 산신령이 나타나 절로 보내 가르치라 하지만,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못 보낸다.
- ④ 아들이 스무 살 되는 해에 개고기와 떡을 해달라고 하더니 잔뜩 먹고 죽는다.
- ⑤ 아들이 죽은 후 회오리바람에 지붕이 날아가는 시련을 겪지만, 죽은 아들이 현몽하여 극복할 방법을 알려준다.

<태몽>은 태몽 모티프인 ①과 그 후의 사건을 그린 후일담 ②~⑤로 구성된다. ①의 잉어를 얻는 꿈은 귀자 태몽이지만, 태아상징으로 ‘시들한 잉어’를 얻었다는 점에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나 수명에 문제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아이는 귀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으나 부모의 경제적 환경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 <태몽>의 제보자는 구연의 끝부분에서

11) 박상란(2010.12), 앞의 논문, 183-185쪽. 이 글에서는 현대에 전승되는 딸 낳는 태몽을 조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아들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호랑이, 용, 돼지 등이 딸 상징으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딸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시대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자식을, 큰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받침을 못 했는 기라, 부모가.”라고 하여, 잉어 태몽이라는 귀자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부모를 탓하고 있다. 이처럼 태몽에는 아이의 잉태나 성별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예견하는 상징이 담겨있는데, 특히 아이의 ‘건강’이나 ‘장래’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다. <태몽> 서사의 후일담은 임신을 겪는 부모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을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우려하는 마음의 발로로 형성된 것이다.

자료25 <아들 태몽>도 이와 유사하다. 이 자료는 제보자 자신의 태몽 경험으로 꿈에 뱀을 보고 큰 유리병에 담은 후 첫아들을 출산했다는 내용인데, 후반부에서 제보자는 꿈속에서 병에 든 뱀을 꺼내 해치려 하였으나 병 속에 든 뱀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배암이 잡아갖고 썰어불었으면 애기가 크다가 죽은디. 안 짤르고 글로 인자 그래갖고 꿈을 깨불었제.”라는 제보자의 회고에는 하마터면 자신의 손으로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뻔했다는 두려움과 이를 피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는 안도가 함께 담겨있다. 태몽주체가 태아상징을 해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낙태와 관련된 의도가 있었고 이후 아들이 태어나면서 꿈에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설화 구연 상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태몽은 ‘태아상징’을 잘못 다루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임신 중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태어난 후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투영된 것이다. 설화에서 태몽은 주로 남아의 잉태를 예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태몽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잉태의 인

12) 태몽에서 태아상징이 해를 입거나 또는 태몽주체가 태아상징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은 임신부의 유산이나 낙태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상란을 이를 ‘낙태꿈’이라 명명하고 “낙태로 인한 태아의 죽음이 예시(豫示)된 꿈”이라 정의하였으며, 실제 채록한 20편의 낙태꿈을 분석하였다. 박상란, 「낙태 관련 태몽담의 서사적 특징과 의의」, 『한국문학연구』 4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16쪽.

지와 성별 감별이라는 사실확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건강과 장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혼재되어 있으며, 부모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가 담겨있기도 하다.

## 2) 기자담의 주술성과 선행의 결과로서의 잉태

자식을 낳기 위해 기원하는 행위를 ‘기자행위’라 하며, 크게 치성기자와 주술기자로 구분된다. 치성기자는 산이나 절 등지에서 일정한 대상물에 부부가 공을 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주술기자는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색다른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잉태하려는 것으로,<sup>13)</sup> 설화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구분	설화명	제보자	년도	지역	출처
1	마시면 아들 낳는 웅달샘 이야기	노인순	2009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계』 개정증보
2	바위를 흔들면 아들을 낳는 요선정 흔들바위	신용녀	2009	충북 제천시 봉양읍	『대계』 개정증보
3	벌초하면 아들 낳는 명산 임씨 부인 묘	황경도	2009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계』 개정증보
4	기자치성으로 얻은 서문정남의 남동생	서문정남	2009	전북 장수군 계북면	『대계』 개정증보
5	황희 정승 어머니가 기자치성을 드린 노하리숲	김순홍	2009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계』 개정증보
6	벌초하면 아들 낳는 주천자묘	박재원	2009	충북 제천시 수산면	『대계』 개정증보
7	기자(祈子) 경험담	이춘화	2010	경북 포항시 송라면	『대계』 개정증보
8	백일산제 지내고 아들 낳기	전예금	2011	전남 담양군 무정면	『대계』 개정증보
9	곳집 휘장으로 속옷 만들어 입신한 여자	백천기	2012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대계』 개정증보
10	시아머니를 잘 봉양해서 아들 낳는 며느리	이상수	20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대계』 개정증보

13) 이두환·장주근·이광규, 앞의 책, 86-87쪽.

11	아들 낳기 위한 어머니의 정성	이경	2015	경북 울릉군 현포리	『대계』 개정증보
12	기자점을 보던 아들바위	정수병	2016	충북 옥천군 동이면	『대계』 개정증보
13	벌초하면 아들 낳는 묘 1	이선훈	2016	경북 김천시 조마면	『대계』 개정증보
14	벌초하면 아들 낳는 묘 2	이선훈	2016	경북 김천시 조마면	『대계』 개정증보
15	아들 낳는 법	윤화자	2017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계』 개정증보

[표 2] 『대계』 수록 기자담 목록

[표 2]를 보면 기자담은 태몽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아들을 낳는 문체에 집중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계』에 수록된 기자담의 채록 시기가 모두 2000년대 이후라는 점이다. 1980년대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 신화·전설·민담 중심으로 조사되면서 태몽담이나 기자담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증보사업을 통해 태몽담이나 기자담 등이 설화의 한 영역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자담이 최근에도 이야기로 전승된다는 점은 남아선호사상이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과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그 명분을 잃었지만 사람들의 관념 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기자담에 투영된 남아선호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자료15 <아들 낳는 법>이다. 제보자는 딸만 내리 셋을 낳자, 시택 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입관 때 첫 흙을 세 번 넣으며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빈다. 또한 큰어머니의 상여를 땀 때 썼던 삼베를 가져다가 속옷을 해 입을 후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속신을 담고 있는데, 이는 큰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일종의 ‘조상신’이 되어 소망을 들어준 것으로 주술기자에 속한다. 자료7 <기자경험담>은 아들 낳은 시할머니의 속옷을 빌려 입거나, 점쟁이를 불러 시준단지(세존단지)에 치성드린 옷을 갖다 입고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다. 아들 많이 낳은 사람이 출산했을 때 첫국밥을 해주거나 그 사람의 속옷이나 관련된 물건을 가져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유감주술적

효과로 당사자도 임신할 수 있다는 기자행위는 보편적이었다.<sup>14)</sup>

이 외에도 자료1·2에서는 영험한 옹달샘물을 마시고, 흔들바위를 만지는 등 자연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함으로써 아들을 갖게 된다는 주술기자를 반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설화는 민간의 삶을 담은 매체로 민속으로 전승되는 기사속의 다양한 양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기사담은 치성기자나 주술기자를 소개하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전승되며, 여기에 제보자의 경험담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관련 속신을 전달하는 정도의 단편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기사담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술적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13 <별초하면 아들 낳는다는 묘>에서는 임신을 선행의 결과물로 그린다. 마을에 후손이 돌보지 않아 버려진 묘가 있었는데, 어느 때 부턴가 별초를 해주면 아들을 낳게 해주는 영험 있는 묘로 여겨진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3·6·14 역시 버려진 묘를 돌보는 선행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자료10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아들 낳은 며느리>는 아이를 갖고 싶어 매일 불공을 드리는 부부에게 스님이 '절에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알려준다. 불공을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시어머니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여 결국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한다. 효도를 하면 그 선행의 결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은 앞의 이야기와 같다. 죽은 자나 시어머니 등 나보다 뒷사람을 대접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기자의 소망이 성취될 수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설화의 세계관에서는 효행이나 선행을 한 이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의식이 임신의 문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임신이 일종의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부귀를 획득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같이 아

14) 다양한 기사 속신의 사례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들을 잉태하는 것 또한 행복의 요건 중 하나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자담은 아들을 갖고자 했던 절실함을 바탕으로 주술적으로 행해졌던 속신을 담고 있으며, 선행을 베풀거나 덕행을 쌓은 결과로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을 담고 있다.

### 3) 금기담에 형상화된 양가적 태도

임신은 귀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부정한 것을 가려야 한다는 인식이 ‘임신 금기’라는 속신(俗信)으로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금기는 주로 아이를 잉태한 임신부의 행위와 섭생, 마음가짐 등의 측면에서 주어졌는데,<sup>15)</sup> 태아와 임신부를 동일시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조선후기 사주당 이씨가 저술한 『태교신기(胎敎神奇)』에서는 “뱃속의 자식과 어머니는 혈맥이 매어 이어져서 어머니가 숨쉬에 따라 아이도 움직이므로 기빠하고 성내는 것이 자식의 성품이 되며, 보고 듣는 것이 자식의 기운이 되며, 마시고 먹는 것이 자식의 살과 피부가 되니, 어머니가 어찌 이를 삼가지 않으리오.”라 한 바와 같이, 임신부의 호흡과 감정, 외부환경, 섭취하는 음식이 뱃속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임신부와 아이가 혈맥(血脈)으로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sup>16)</sup>

15) 임신 금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데, 그 양상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임신부의 행위나 음식 섭취에 관한 금기가 강조되는 반면, 중국의 임신금기는 한국과 유사한 것이 많지만, 특히 태신(胎神)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태아를 보호하는 태신이 산모와 아이를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태신을 범하면 감응이 이러나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한·중 문헌에 나타난 임신 금기의 비교는 진애라, 「한·중 전통사회의 임신금기(妊娠禁忌) 고찰」, 『우리문학연구』 52, 우리문화회, 2016를 참고하였으며, 중국의 임신 금기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상기숙, 「중국 민속문화의 임신금기 고찰」, 『중국학논총』 24, 한국중국문화학회, 2007.

16) 윤은경, 앞의 논문, 169쪽.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임신부의 마음가짐이다. “자식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피는 마음에 인하여 움직이므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의 이루어짐도 또한 바르지 못하니, 임부의 도

구분	설화명	제보자	년도	지역	출처
1	임신한 여자가 뱀서 승천하지 못한 용	김진하	2009	경기 김포시 통진읍	『대계』 개정증보
2	어장촌에서 뱀일과 출산은 상극	탁금례	2009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계』 개정증보
3	임신한 사람이 결혼식에 가지 않는 이유	신길자	2011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계』 개정증보
4	임신했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병신 낫는다	김분자	2012	경기 양주시 광적면	『대계』 개정증보
5	구렁이를 건드린 산모가 출산한 아이	곽정자	2014	경기 구리시 갈매동	『대계』 개정증보
6	개가 핥고 임신을 하면	최옥희	2015	경기 하남시 덕풍동	『대계』 개정증보
7	홍역, 마마, 출산 관련 이야기	황점순	2017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계』 개정증보

[표 3] 『대계』 수록 임신 금기담 목록

[표 3]의 설화에서는 보편적인 임신 금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6 <임신했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병신 낫는다>는 ‘조건절+결과절’이라는 ‘속신어 문장’<sup>17)</sup>으로 표현된 음식금기를 다룬다. 자료7 <구렁이를 건드린 산모가 출산한 아이>도 임신부가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행위 금기를 담고 있다.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불붙은 부지깥이로 구렁이를 건드려 다치게 하였다가 출산했더니 아이도 구렁이처럼 부풀었다는 감염주술적 속신의 사례를 담은 설화이다. 자료8 <개가 핥고 임신을 하면>에서는 개가 핥은 다음에 임신하면 ‘호랑

리는 공경으로써 마음을 얹혀 방심하지 않도록 해서 혹이라도 사람을 해치며 산 것을 죽일 마음을 먹지 말며, 간사하고 탐하여 도적질하며 시샘하며 훼방할 생각이 가슴에 싹트지 못하게 한 뒤에야 입에 망령된 말이 없고 얼굴에 원망받은 색이 없으니, 마일 잠깐이라도 공경된 마음을 잊으면 이미 피가 그릇된다. 이것이 입부의 마음 가라앉힘이다.”(168쪽).

17) 정일형, 「산육속신어 연구」, 『비교민속학』 16, 비교민속학회, 1999, 135쪽. 이 논문에서는 최래옥의 「속신어의 성격연구」(『훈민 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 출판부, 1983)을 인용하여, 속신어에는 그 내용의 성격과 분류를 제시해주는 기능을 가진 단어가 고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민간속신어=기능요소(조건절+결과절)’으로 도식화되며, 조건절은 ‘~하면 또는 ~하게 되면’이며, 결과절은 ‘~하게 된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의 밥이 된다(호산으로 간다)'거나 그 아이는 개와 같다는 속신을 다루었다. 이러한 금기는 일상적인 절제를 요구하면서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도덕적·규범적 성격을 갖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8)</sup> 무엇보다 임신 금기는 태어난 아이가 장애나 기형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부의 행위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사고하면서 형성되었다. 주로 태아의 기형에 대한 우려와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태아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드러난다.

직접적으로 태아의 건강 문제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임신한 여성은 일상적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자료10 <홍역, 마마, 출산 관련 이야기>에서는 혼인 날짜를 잡은 집과 출산한 집은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금기가 서술되는데 호사다마(好事多魔)를 조심해야 한다는 사고의 발로이다. 임신부가 결혼식뿐만 아니라 초상집에 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특히 산모가 초상집에 가면 짓이 마른다는 속신이 있다. 자료5 <임신한 사람이 결혼식에 가지 않는 이유>에서는 임신부가 '공망든다'는 속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공망든다'는 민간신앙의 '공망살(空亡殺)'로 외로운 운명이 되거나 남편있는 여성이 독수공방하게 된다는 뜻이다. 출산을 통해 곧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언함으로써, 그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구속력을 강화한다.

이제껏 살펴본 금기와는 달리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 금기도 존재한다. 자료3 <어장촌에서 뱃일과 출산은 상극>은 어촌에서 일상화된 금기로, 출산한 집에서는 그 직후에 남편이 배를 타지 못하게 하였고,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뱃일을 하는 남편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금기를 어기고 부인이 갓 낳은 아기를 보고 배를 탔다가 죽

18) 종교적 혹은 도덕적 금제와 다른 심리적 제한을 받는 점이 바로 터부(금기)의 특징이다. 이윤기 역, 「토템과 터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56쪽.

은 사람이 있다는 후일담을 통해 금기의 규제성을 강화한다. 자료2 <임신한 여자가 봐서 승천하지 못한 용>은 임신부가 승천하는 용을 보았더니 그 용이 떨어져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제보자는 이야기의 말미에서 “여자가 안 봤으면 용이 잘 될 텐데...”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임신부를 터부시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는 임신부가 함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금기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겪고 있는 여성 존재를 터부시하는 의식을 담고 있다.

금기담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중적 인식,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임신부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식과 임신과 출산의 상황과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동시에 드러난다. 민간신앙에서는 월경을 겪는 여성이 마을제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풍속이 있는데, 월경은 임신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sup>19)</sup> 월경 중인 여성이 일시적 터부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산통 중인 산모 역시 터부의 대상이 되었다.<sup>20)</sup> 출산은 출혈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월경과 동일시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임신부에게도 전이되어 부정되었던 관념이 임신 금기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속신으로 전승되었던 금기와 임신 금기담을 통해 드러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양가적 인식의 흔적은 관련 속신이 매우 오래전에 형성되어 전승된 것임을 반증한다.

19) 박이은실, 『월경의 정치학: 아주 평범한 몸의 일을 금기로 만든 인류의 역사』, 동녘, 2015, 21~40쪽. 특히 25~26쪽에서는 인류 보편의 월경 터부를 ‘월경 오염(menstrual pollu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회에서 월경이 무엇인가를 오염시키는 것, 따라서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특히 월경혈이 살아있는 것들을 해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생리 중인 여성은 고기를 간하지 말아야 하며(고기 맛을 상하게 하므로), 농사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농작물을 상하게 할 수 있어서), 포도주와 맥주 주조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술의 맛이 나빠질 것이므로)를 설명해 준다.

20)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59쪽.

### 3. 난산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 기제

출산은 산모와 아이가 분리되는 생물학적 사건으로, 두 존재의 ‘분리’에는 지독한 고통이 따랐으며 심각하면 난산(難産)에 이르렀다. 난산은 생명의 존폐문제를 결정하는 사건이기에 출산의 과정을 다루는 설화는 대부분 난산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난산담에 드러난 ‘난산’에 대한 인식과 이의 극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난산담은 기존 연구에서 ‘난산치료담’이라 명명되었는데, 설화의 난산 상황은 반드시 해소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치료’에 해당하는 서사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난산담에는 반드시 의원이 등장하는데, 본고에서는 의원의 난산 처방에 따라 수술담과 치료담으로 구분하였다.

#### 1) 난산 극복을 위한 주술적 행위

난산을 소재로 하는 설화는 다른 제목으로 ‘낙태 막는 처방’, ‘난산 극복하는 법’, ‘순산하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명명되었는데, 그만큼 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여 산모와 태아를 살리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한다. 해당 설화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설화명	제보자	년도	지역	출처
1	추명의(秋名醫) 일화(낙태 막는 처방)	성병용	1979	경남 거제군 거제면	『대계』 8-2
2	추명의 일화(낙태 막는 처방)	김경택	1979	경남 거제군 거제면	『대계』 8-2
3	추명의 일화(순산하는 처방)	이인진	1979	경남 거제군 거제면	『대계』 8-2
4	추명의 일화(순산하는 처방)	김달규	1979	경남 거제군 거제면	『대계』 8-2
5	신연당 유의태	유윤봉	1980	경남 거창군 위천면	『대계』 8-6
6	월계 진좌수	송기조	1980	제주 제주시 오라동	『대계』 9-3
7	해산시의 조약 처방	류재희	1981	경북 안동군 임동면	『대계』 7-9

8	월계 진좌수(1)	김재현	1981	제주 서귀포시 증문동	『대계』 9-3
9	명의 유희태(1)	남길우	1982	경남 의령군 의령읍	『대계』 8-10
10	명의 유희태(2)	남길우	1982	경남 의령군 의령읍	『대계』 8-10
11	명의 유희태(3)	송관용	1982	경남 의령군 의령읍	『대계』 8-10

[표 4] 『대계』 수록 난산주술담 목록

[표 4]의 난산담에는 반드시 명의가 등장하여 주술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자료1~4는 ‘추명의’라 불리는 의원이 난산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대대로 독자인 집에서 산모가 계속 난산이자, 추의를 찾아간다. 추의는 ‘이슬을 받아먹으라거나, 문고리 또는 장기의 졸(卒) 자(字)를 삶아서 산모에게 마시게 하라’고 한다. 그 처방대로 했더니 순산하였다(또는 유산이나 낙태를 막았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난산을 겪는 산모를 돕기 위해 주술적 사고를 바탕으로 특정 음식을 먹이는 방법은 널리 행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계란·참기름·돼지고기·미역·수제비와 같이 미끄러운 성질의 음식이 해답이 되었다. 또는 음식이 아닌 것 중에 ‘빠지거나 쏟아져 내리거나’, ‘생명력이나 분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 속성이 있으면 그것을 난산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반지나 비녀 같은 것들을 끊어 그 물을 임신부에게 먹였다.<sup>21)</sup>

특히 <추명의 일화>에서 쓰인 방법과 같이 문고리를 끊인 물을 임신부에게 먹이거나 열쇠를 달여 그 물을 먹이는 방법은 민간의 ‘난산 뱅이’로 실제로 활용되었던 방법이기도 하다.<sup>22)</sup> 난산이라는 위급한 상황과 일상생활의 어떤 면이 공통의 속성을 갖는 것에서 도출된 방법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인간과 이를 둘러싼 환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관념하였고, 이는 프레이저의 모방

21) 이필영, 앞의 논문, 28~32쪽.

2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편 상』,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39쪽.

주술, 점촉주술의 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sup>23)</sup> 특히 위의 이야기는 이원적 대립구조를 갖는데, 전반부에서는 명의가 알려준 방법으로 유산을 막고 난산을 극복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이를 일반인이 그대로 하였다가 난산(유산) 해결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 똑같은 방법을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유를 물어보니, ‘저녁 이슬은 붙어서 효과가 있지만, 아침 이슬이 떨어지는 것이라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문을 여는 문고리는 순산에 도움이 되지만, 문을 닫는 문고리는 그 반대라고 하였다’는 등 주술적인 방법에도 나름의 원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의원의 주술적 처방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난산 치료의 행위가 실은 우주의 작동원리를 깨우친 이인(異人)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설화에서 의원의 의료행위는 난산 시 민간에서 행했던 속신적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난산담에서 명의가 알려준 주술적 처방의 공통점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인데, 이는 여러 이야기에서 반복된다. 발을 갈던 조약이라는 의원은 아내의 난산 때문에 다급하게 달려온 남편에게 무심하게 썩과 냉이를 뜯어주는데, 이를 먹고 그 아내가 무사히 해산하였다는 자료7 <해산시의 조약 처방>이 그렇고, 자료5 <신연당 유의태>는 유의태가 중국 천자의 병을 고치는 등 명의담이지만 낙태한 여성이 찾아오면 장기들을 삶아 먹으라고 한다든가, 산후후유증인 산후발(産後發)이 생긴 여성에게 콩나물을 삶아 먹이라고 하여 낫게 한다. 이들의 처방은 하나같이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설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로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알려주는 것은 명의의 덕목이었다.

이처럼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처방을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의원상에 가까울 것이다. 15세기 의학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에서는 의원의 윤리 중 하나로 영리추구를 하기보다는 환

23) 이필영, 앞의 논문, 42쪽.

자를 고친 선행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사가 자기의 좋은 기술을 뽐내거나 돈벌이에 정신을 쓰지 않고 오직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만 한다면 은연 중에 스스로 많은 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부자나 직위 높은 사람이라 하여 비싸고 귀한 약들을 처방하여 환자로 하여금 구하기 힘들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재능을 뽐낸다면 이는 충서(忠恕)의 도가 아니다”<sup>24)</sup>라 하였다. 이러한 윤리의식은 당대 명의의 관념과 긴밀하게 연결된 보편적인 인식이었으며, 명의를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에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의원에 대한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난산담에서 ‘치료’는 다분히 수술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근대 이전에는 의원을 통해 의료의 혜택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기에 난산에 직면하면 각종 민간요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심각한 난산에 접어들면 현실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급박한 상황에서 초월적인 대상과 방법에 매달리게 되고 삼신 치성이나 각종 ‘난산뱅이’와 같은 수술적 처방<sup>25)</sup> 정도가 민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수술이 민간의 과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산담에 등장하는 처방은 민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경험방 차원의 지식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민간에서 전승된 이야기의 특징이자 의료 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대다수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24) 신동원, 「조선시대 의학론」, 『의사학』 제13권 제1호(통권제24호), 대한의사학회, 2004, 3쪽.

25) 이필영, 「難産 극복을 위한 민속적 대응」, 『역사민속학』 제4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뱅이’란 인간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거나 어쩔 수 없이 기왕에 일어난 제액(災厄)을 되도록 빨리 소멸시키거나 극복하려는 일종의 수술적 대응이나 방법이다. 뱅이란 낱말의 어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예방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방지한다’, ‘막는다’ 등의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같은 글, 10쪽 각주 1). ‘난산 뱅이’는 난산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난산의 상황에서 행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 2) 난산치료담에서 ‘난산’의 의미

구분	설화명	제보자	년도	지역	출처
1	이석환의 침술	현갑진	1979	경북 성주군 침산3동	『대계』 7-4
2	명풍수와 명의	윤병순	1979	경남 거제군 신현읍	『대계』 8-1
3	풍수도 의원도 도둑놈 아니다	이중철	1980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계』 7-6
4	유명한 침술, 관상술, 풍수설	박순악	1980	경남 진양군 수곡면	『대계』 8-3
5	풍수, 관상쟁이, 침쟁이의 세 친구	이차문	1980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계』 8-5
6	삼형제의 재주	최영길	1980	경기 남양주군 미금읍	『대계』 1-4
7	선동(先童)이 구별	최유봉	1980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대계』 1-4
8	명풍과 명의	홍원유	1981	충남 아산군 둔포면	『대계』 4-3
9	관상쟁이, 의원, 지관의 행각	임성순	1982	충남 부여군 구룡면	『대계』 4-5
10	세 사람의 재주 자랑	박수남	1982	전북 군산시 삼학동	『대계』 5-4
11	의원, 풍수, 상쟁이의 능력 겨루기	신학균	1983	대구 수성구 범어1동	『대계』 7-13
12	풍수와 약국의 재주 겨룸	박대열	1984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계』 8-14
13	용한 지관과 의원	이창영	2010	강원 홍천군 서석면	『대계』 개정증보

[표 5] 『대계』 수록 난산치료담 목록

자료1 <이석환의 침술>과 자료7 <선동이 구별>을 제외하고,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는 각각 다른 재주를 가진 인물 2인 또는 3인이 우연히 만난 타인의 위기를 자신이 재주로 해결해주고 보은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외가 되는 <이석환의 침술>과 <선동이 구별>은 의원만 나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난산을 해결해주고 보은을 받는 점은 동일하다. 이 유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의원과 풍수가, 또는 의원·풍수가·관상쟁이와 같이 각자 자신의 재주 영역이 뚜렷하다. 각 인물에게는 재주를 시험하는 난제가 제시되고 이를 풍수나 관상술, 의술을 통해 해결하고 재주를 인정받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유형의 이야기를 광의숙은 ‘난산치료 경합담’이라 하였으나,<sup>26)</sup> 등장인물들이 경쟁을 하기 보다는 각각 개별적

26) 광의숙, 앞의 논문.

인 위기 상황을 맞아 자신의 재주로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로 의술과 풍수, 관상술이 모두 중요한 재주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에게 주어진 난제가 ‘난산’으로 설정되었다. 보편적으로 난산을 긴박한 의료적 상황으로 인식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의원의 재주를 부각시키는 난제로 등장하였다. ‘난산치료담’에서 난산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한 집안의 가계 계승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의원의 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료2 <명풍수와 명의>는 성지박사와 유의태라는 유명한 두 인물이 함께 여행을 다니다가, 각각 명당 찾기와 난산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유의태가 의술을 펼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유의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모 저 안에 가서 실로, 너 안방에 대서로 이사랑까지 올만한 실로 가져 오이라. 그래 실로 안방에서 자렐만치(자랄 만큼) 해 가이고 문구영을 뚫고 말이지 사랑방에다 열고, 저쪽에다 문구영을, 문구영을 해서 들어 가구로 이래 가이고 그래 자기 침을 내어가지고 말이지 그래 그 춤끝얼이다가(침끝에다가), 침을 딱 채매 가지고 이 침을 가야 가서, 아아, 놓는 마님 말이지 가슴에 여어(여기) 대서로(여기부터) 몇 손가락 새어 그다(거기다) 침을 뽑아라, 뽑으몬 나는 이 줄고 잡고 사람에서 가만 잡고 있을끼다. 잡고 있으몬 그래 가 몇 손가락을 새어 거만(거기만) 뽑으몬 아이를 놓을끼다. 가 가서 그리 해라. 그래 자기는 사랑에 앉아서 줄 그것만 가만 잡고 앉아 있던 말이다. 앉아 있는데 그댁 하인이 인자 그 침을 줄로 가야 가서 주인한테 이배기를 했거든. 사랑에 온 손님이 말이지 그 침을 그래 뽑으라 콧디다. 이 손가락을, 배 있는 요기서 몇 손가락 거석을 데서 가슴에 데서 재 가지고 뽑으라 콧디다. 그래 그대로 참 해 본까이 그만 아이를 낳아 아아가 애앵 울더라네.

유의태는 안방에 있는 산모를 사랑방에서 진료하고, 치료 역시 그 방법을 환자 가족에게 전달하여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다. 난산은 그야말로 위급한 의료적 상황임에도 남성 의원이 산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을 통

해 간접적으로 맥을 짚고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가족이 의술을 행하였던 것이다. 남성 의원이 여성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없어 벌어진 상황이다. 다른 자료인 자료8 <명풍과 명의>에서는 의원이 쌍둥이 난산을 치료하고 큰 복을 받는데, 의원에게 주어진 상황은 앞서 살펴본 이야기와 동일하지만 치료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래를 말야. 아래를, 여자 아래를 말야. 아래를 흘랑 뱉끼고 말어. 뱉겨 놓고서, 뱉겨 놓고서는 내가 볼 수가 있다.”고 말야. 그러거든. 그러니 이거 뭐 저놈이 알런지 모를런지 모르겠지만 당장 급하니께 저놈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더 있느냐 말야.

이미 사나흘 동안 계속된 진통에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의원이 산모를 직접 진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의원이 진료와 치료를 환자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술하였으나, <명풍과 명의>에서는 그런 허울을 과감히 던지고자 한다. 위급한 난산 앞에서는 사회적 규범도 무력화되어야 한다는 민중의 의지가 드러난다.

또한 ‘난산치료담’에서는 난산을 침술로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서 주술적인 방식을 제시했던 ‘난산주술담’과 차이가 있다. 침술은 한의학에서 외과적 진료에 속한다. 이는 난산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탕약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민간에서 보편적이지 않았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탕약은 그 약재를 구하는 부담으로 널리 쓰이지 못했고, 탕약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혜택이 서민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오죽하면 찬물을 떠 놓고 ‘유이태탕’, ‘이경하탕’이라 써서 환자에게 주었다는 설화<sup>27)</sup>에서는 서민의 삶에서 탕약이

27) <유이태탕>, 박동준 구연, 『대계』 7-2, <감히 이경하탕>, 최영길 구연, 『대계』 1-4. 이에 대해 이인경은 “병마라는 악귀가 두려워하는 명의의 이름에 의지해서라도 병을 물리치고 싶었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인경, 「口談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국문학연구』 제23호, 국문학회, 2011, 210쪽.

귀했던 사실과 수술적 방법을 통한 위약효과를 통헤서라도 치료를 간절히 바라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난산은 의료적 처치가 절실한 영역이지만, 근대 이전에는 실제로 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적 조치가 미비한 형편이었다. 그래서 난산담은 모두 명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모의 고통이나 아이의 위험 정도보다 명의의 재주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난산주술담에서 명의는 의학적 지식의 통달을 넘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 그려진다. 난산에 대한 그의 처방은 일견 수술적 차원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행하면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만다. 난산치료담에서는 침술을 통해 난산을 치료하면서 명의의 신묘한 침술에 대한 감탄이 핵심적으로 그려진다.<sup>28)</sup> 그 과정에서 난산을 겪는 산모의 고통은 외면되었고, ‘난산’은 명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난산치료담에서는 난산을 걱정하는 시아버지와 난산을 겪는 산모가 등장한다. 이를테면, ‘의료인-환자-환자 가족’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산모의 가족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시아버지로, 난산으로 대를 이룰 후손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한다. 특히 난산치료담에서 산모의 난산은 독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유복자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산모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며 게다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

하지만 난산의 주체는 산모지만, 난산치료담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명의이다. 대를 끊길 것을 염려하는 시아버지의 심정보다 산모의 난산 고통과 두려움이 중요하지만 난산담에서 산모의 발화는 이야기의 중심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의원의 의술은 산모가 아닌 태아를 향해있다. 산모는 태아를 임신한 몸 그 자체로 간주되어 대상화되고 있다. 산모는 태아를 출산

28) <명풍과 명의>에서 의원은 침술을 통해 난산을 돕는 것은 물론, 침술로 태아의 출산 순서를 조절하여 쌍둥이의 선후관계를 판단케하는 근거기를 제공하여 가문의 장자와 차남을 구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다가 죽게 되었지만 또한 태아로 인해 구명되었다는 점에서, 산모는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적인 몸으로 물화된다.<sup>29)</sup> 난산담에서 산모가 소외되는 현상은 전통사회 출산의 민낯을 보여준다. 가부장제가 공고하였던 전통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문권을 수호할 수 있는 요건이기에 엄격한 규범의 통제를 받았고, 대부분의 여성은 빈곤의 문제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출산의 노고를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였다. 출산에서 여성은 잉태의 주체라기보다는 아이 다음의 부차적 존재였다. 이러한 현실이 난산담에 투영되어 출산을 걱정하는 시가(媿家)의 남성과 재주있는 명부의 대화만 오고갈 뿐, 산모는 부각되지 않는다.

『대계』에서 출산 과정을 소재로 하는 설화는 모두 난산담이지만 예외적으로 출산으로 인해 사망한 여성의 이야기가 1편 채록되어 주목된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는 <출산하다가 죽은 귀신을 혼낸 산모><sup>30)</sup>인데, 출산을 겪을 산모가 출산 때문에 죽은 귀신을 만난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산모가 출산 직후 셋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고 빨건 옷을 입은 여성’이 방문을 열었고, 산모는 호통을 치며 쫓아보낸다. 후에 알고 보니 과거에 그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여성이 원혼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설화에 묘사된 ‘죽은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 얼굴은 시퍼런 데다 출혈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이 드러난다. 현실에서는 출산으로 죽음을 맞이한 여성이 많은데도, 출산 관련 설화에서는 죽은 산모나 그 원혼이 등장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출산으로 인해 희생되었으나 영혼으로도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은, 출산으로 죽은 여성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회적 관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산모는 죽어서도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29) 이인경,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子를 향한 他者の 시선」, 『어문론총』 제5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69-170쪽.

30) <출산하다가 죽은 귀신을 혼낸 산모>(곽정자, 2014,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 4. 출산 관련 설화의 의미

본고는 출산 관련 설화를 대상으로 설화향유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이야기의 가치를 논의하고자 『대계』에 수록된 설화에서 출산문화를 소재로 하는 74편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계』에는 임신의 준비와 임신 중 금기를 다룬 산전의례를 소재로 하는 설화가 다수 수록되었으며, 출산 중 고통을 다룬 난산 소재 설화가 특징적으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속으로 전승되어온 산전의례와 난산 극복의 행위들은 오래된 문화이자 민간적 의료방식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가 이야기의 형태로 전승되면서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설화의 일부가 전승자 자신의 체험담으로 구연되었다는 점에서 생활상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곧 출산 관련 설화에 형상화된 태몽과 기자, 금기 등은 현장성을 가진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 관련 설화에 대한 논의는 출산과 그 주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출산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장에서는 2, 3장에서 논의한 출산 관련 설화의 양상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몽담과 기자담은 임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아들낳기의 소망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현대의 난임과 같이 불확실한 임신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임이 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죄악으로 치부되었기에 가부장제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때로는 여성의 부정(不淨)도 용인될 수 있었던 모습이 ‘여성부정출산담(女性不淨出產談)’에 투영되어 있다. 태몽담과 기자담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남아를 선호하는 관념을 대변하였다기보다는 남아선호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꿈을 통해 아들을 낳는 문제를 예견하려고 하거나, 기자치성으로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를 실행하

는 모습은 시대가 요구한 삶에 충실하려 했던 과거 모든 여성의 삶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소망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임신에 대한 부담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불안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몽과 기자의 속신이 생겨나고 이야기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금기담에서 금기는 여성과 출산에 대한 전통사회의 양가적이고 불온한 인식을 드러내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임신부는 태아를 위해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규제 하에 오히려 태아에 종속된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난산담에서도 드러나는 바, 난산담에서 고통의 주체인 산모는 출산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시가의 남성이며, 출산에 관한 산모의 목소리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난산담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은 치료 담당자인 명의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명의의 의술을 시험하는 고난으로 난산이 설정됨으로써 이를 얼마나 위급한 의학적 상황으로 인식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설화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대인의 삶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난임의 어려움이나 잉태한 아이의 건강과 장래에 대한 불안, 난산의 두려움은 여전하다. 좀 더 심화한다면 출산에서 가장 배려해야 할 산모가 과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의 문제를 난산담에 등장하는 산모를 통해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 출산문화는 산부인과로 대표되는 출산의료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병원 분만이 한국사회에 자리잡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재는 변화의 지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한 출산문화는 전통 출산의례와 현대 출산의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산은 전적으로 의료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공동체가 유지해온 오래된 관습과 삶에 대한 태도를 기반으로 하기에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대 출산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천편일률적인 출산의료가 이루어졌던 8~90년대를 지나 90년대 후반부터 자연주의 출산 등 출산의료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

면, 올바른 출산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관념 안에서 출산이 어떻게 존재해 왔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 ■ 참고 문헌

[자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논저]

곽의숙, 「한국 의료설화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편 상·하』,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김도형, 「‘여성부정출산담’의 유형과 의미-결혼제도와 이중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문학회』 67집, 우리문학연구, 2020, 7-27.

박상란, 「비극적 태몽담과 죄의식의 문제-구전설화 <태몽>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55집, 동악어문학회, 2010, 199-228쪽.

\_\_\_\_\_, 「출산경험의 서사화와 현대 태몽담-뱀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19-356쪽.

\_\_\_\_\_, 「낙태 관련 태몽담의 서사적 특징과 의의」, 『한국문학연구』 44, 한국문학연구소, 2013, 211-244쪽.

\_\_\_\_\_, 「죽음예지태몽담의 구조적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107-145쪽.

박이은실, 『월경의 정치학: 아주 평범한 몸의 일을 금기로 만든 인류의 역사』, 동녘, 2015.

상기숙, 「중국 민속문화의 임신금기 고찰」, 『중국학논총』 24, 한국중국문화학회, 2007, 423-440쪽.

신동원, 「조선시대 의학론」, 『의사학』 제13권 제1호(통권제24호), 대한의사학회, 2004, 134-145쪽.

윤은경,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의 태교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1권 1호, 2018, 157-174.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2004.

이인경, 「口碑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국문학연구』 제23호, 국문학회, 2011, 195-226쪽.

\_\_\_\_\_,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子를 향한 他者の 시선」, 『어문

- 론총』 제5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43-180쪽.
- 이필영, 「難産 극복을 위한 민속적 대응」, 『역사민속학』 제4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7-47쪽.
- 정연보, 「출산문화 담론에 나타난 자연 개념과 젠더」, 『여성과 사회』 15, 한국여성연구소, 2004, 232-256쪽.
- 조영미, 「한국의 출산의 의료화 과정-의료, 국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7(1), 대한여성건강학회, 2006, 29-52쪽.
- 진애라, 「한·중 전통사회의 임신금기(妊娠禁忌) 고찰」, 『우리문학연구』 52, 우리문학회, 2016, 121-158쪽.
- 프로이트, 이윤기 역, 「토템과 터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 홍나래, 「조선시대 귀태(鬼胎) 소재 설화의 문화사회적 의의와 한계」, 『한구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229-262쪽.

■ Abstract

## The Patterns and Meanings of Childbirth-Related Tales

Youm, Wonhee  
Kyunghee University

□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atterns of issues around childbirth and discuss their cultural meanings based on childbirth-related tales by reviewing tales about conception dreams, wish for a son, taboos during pregnancy, and hard labor in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 Literature. Tales about conception dreams and wish for a son project desperate wish for pregnancy, addressing a wish for a son. In the end, however, they contain an intention to solve the issue of uncertain possibilities of pregnancy. Tales about taboos during pregnancy serve as norms that should be kept during pregnancy and reveal the traditional society's ambivalent and subversive consciousness of women and childbirth. These tales depict pregnant women being subordinate to their fetuses under the regulation that they should be careful about all of their acts for their fetuses. This is also found in tales about hard labor, which present mothers, the subjects of pain, as tools of childbirth. It is male family members that express how sorry they are about mothers' hard labor such as their husbands and fathers-in-laws. The mothers themselves are excluded from this. Hard labor also functions as a task

to display a superb doctor's talent. The present study looked into childbirth tales and found that the issues of women's anxiety about pregnancy, pain of hard labor, and the alienation of mothers that were subjects of pregnancy had continued till today.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childbirth culture is expected to understand continuity from the traditional childbirth formalities to modern medicine for childbirth.

Key words : childbirth culture, childbirth rituals, maternity medical care, Taemongdam, Gijadam, taboos on pregnancy, hardships

투고완료일 : 2020. 11. 25. 심사완료일 : 2020. 12. 17. 게재확정일 : 2020. 12. 28.